

## 주요 노동동향

### ● 생산 및 물가 동향

#### ◆ 2024년 11월 생산은 전월대비 0.4% 감소(전년동월대비 0.3% 감소)

- 전 산업 생산은 광공업, 서비스업, 공공행정, 건설업에서 생산이 모두 줄어 전월대비 0.4% 감소하였음.
  - － 전년동월대비로는 서비스업, 광공업에서 생산이 늘었으나, 건설업, 공공행정에서 생산이 줄어 0.3% 감소하였음.
- 제조업 생산은 반도체, 석유정제 등에서 늘었으나, 자동차, 전자부품 등에서 줄어 전월대비 0.7% 감소하였음(전년동월대비 0.3% 증가).
- 서비스업 생산은 정보통신 등에서 늘었으나, 금융·보험, 수도·하수·폐기물처리 등에서 줄어 전월대비 0.2% 감소하였음(전년동월대비 1.0% 증가).

#### ◆ 2024년 11월 소비는 전월대비 0.4% 증가, 설비투자는 전월대비 1.6% 감소

- 소매판매액지수는 음식료품 등 비내구재(-0.7%), 승용차 등 내구재(-0.1%)에서 판매가 줄었으나, 의복 등 준내구재(4.1%)에서 판매가 늘어 전월대비 0.4% 증가하였음(전년동월대비 1.9% 감소).
- 설비투자는 기타운송장비 등 운송장비(0.1%)에서 투자가 늘었으나, 특수산업용기계 등 기계류(-2.0%)에서 투자가 줄어 전월대비 1.6% 감소하였음(전년동월대비 2.6% 증가).
- 건설기성(불변)은 전월대비 0.2% 감소하였고, 건설수주(경상)는 전월대비 22.0% 증가하였음.

〈표 1〉 최근 경제일반 동향

(단위 : %, 전기(월)대비, ( ) 안은 전년동월대비)

		연간			분기				분기				월		
		2021	2022	2023	2022				2023				2023 11월	2024	
					1/4	2/4	3/4	4/4	1/4	2/4	3/4	4/4		10월p	11월p
생산	전 산업	5.4	4.6	1.0	1.2	1.2	0.3	-0.7	0.1	0.6	1.0	0.7	0.3	-0.2( 2.4)	-0.4( -0.3)
	광공업	8.5	1.0	-2.6	2.5	-2.2	-3.6	-4.8	0.4	2.6	1.3	2.2	1.6	0.0( 6.3)	-0.7( 0.1)
	제조업	8.8	0.9	-2.6	2.3	-2.2	-3.7	-4.9	0.3	3.0	1.3	2.2	1.4	0.3( 6.6)	-0.7( 0.3)
	건설업	-6.7	2.8	7.3	-1.5	1.5	1.5	4.3	2.8	1.1	1.1	-2.5	-2.4	-4.1(-10.8)	-0.2(-12.9)
	서비스업	5.0	7.0	3.2	0.6	3.3	1.6	0.3	1.0	0.0	1.0	0.3	0.0	0.6( 2.1)	-0.2( 1.0)
소비	소비재 판매	5.8	-0.3	-1.5	-0.9	-0.7	0.8	-1.5	0.6	-0.5	-1.9	0.4	-0.1	-0.8( -0.9)	0.4( -1.9)
투자	설비투자	9.6	3.3	-5.4	1.8	-1.5	9.6	-1.5	-8.0	1.0	-3.1	3.1	-1.8	-5.9( 5.5)	-1.6( 2.6)
물가		2.5	5.1	3.6	1.6	1.9	1.1	0.4	1.1	0.6	1.0	0.7	0.0	-0.3( 1.5)	0.4( 1.9)

- 주 : 1) 광공업 생산은 광업(B), 제조업(C), 전기, 가스,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(D)을 포함.
- 2) 서비스업 생산지수는 한국표준산업분류(제10차 개정)상의 13개 대분류(도소매업(G), 운수 및 창고업(H), 숙박 및 음식점업(I), 정보통신업(J), 금융 및 보험업(K), 부동산업(L), 전문·과학 및 기술서비스업(M), 사업시설관리,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(N), 교육서비스업(P),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(Q), 예술·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(R), 협회 및 단체,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(S), 수도·하수·폐기물 처리, 원료재생업(E))를 포괄함.
- 3) 2022년 이후 전 산업 연간수치는 농림어업을 제외한 수치임.
- 4) 물가상승률 월별 자료는 순서대로 2023년 12월, 2024년 11월, 2024년 12월 기준임.
- 5) p는 잠정치임.
- 6) 생산, 소비, 투자의 분기 및 월 수치는 계절조정계열 전기(월)대비, 연간 수치는 원계열 전년대비임.
- 7) ( ) 안은 원계열 전년동월대비임.

자료 : 통계청, 『산업활동동향』, 『소비자물가동향』, 각호.

### ◆ 2024년 12월 소비자물가지수는 전월대비 0.4% 상승 (생활물가지수 전월대비 0.2% 상승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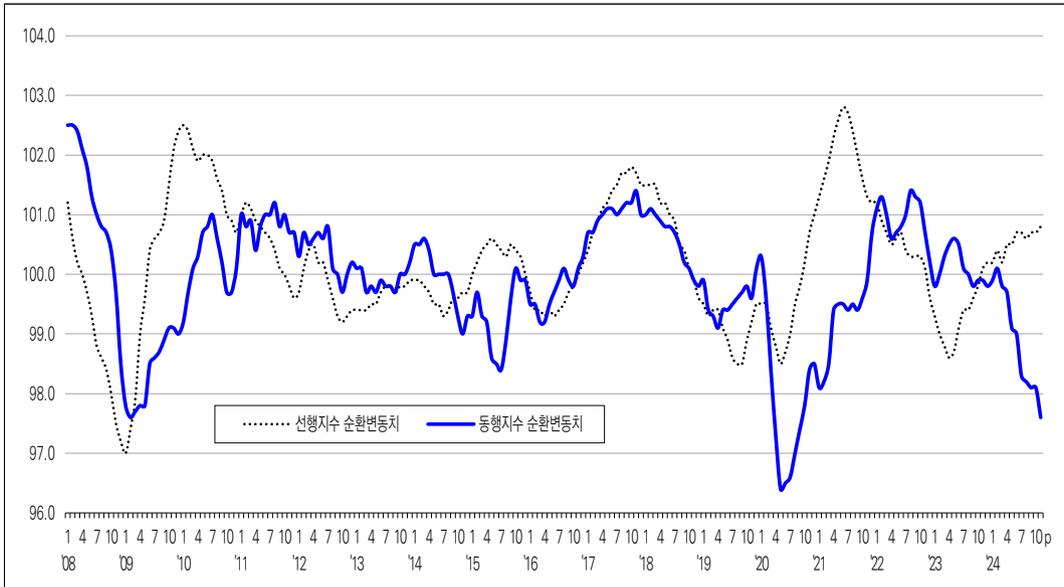
○ 2024년 12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14.91(2020=100)로 전월대비 0.4% 상승하였음(전년동월대비 1.9% 상승).

- 소비자물가지수의 지출목적별 동향을 보면, 전월대비 식료품·비주류음료(1.9%), 교통(0.6%), 음식·숙박(0.3%), 가정용품·가사서비스(0.7%), 주택·수도·전기·연료(0.2%), 오락·문화(0.5%), 교육(0.1%)은 상승, 통신, 의류·신발, 보건의 변동 없으며, 주류·담배(-0.2%), 기타 상품·서비스(-0.4%)는 하락하였음.
- 생활물가지수는 식품은 전월대비 0.3% 상승하였고, 식품 이외는 전월대비 0.2% 상승하여 전월대비 0.2% 상승하였음.

◆ 2024년 11월 동행종합지수는 전월대비 0.3% 감소, 선행종합지수는 전월대비 0.3% 증가

- 현재의 경기상황을 보여주는 동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전월대비 0.5p 하락하였음.
- 향후 경기국면을 예고해 주는 선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전월대비 0.1p 상승하였음.

[그림 1] 경기선행지수 순환변동치 · 경기동행지수 순환변동치 추이



주 : 1) p는 잠정치임.  
 2) 경기선행지수 및 경기동행지수는 2020년=1000이 기준.  
 자료 : 통계청, 『경기종합지수』, KOSIS.

(이기쁨, 동향분석실 책임연구원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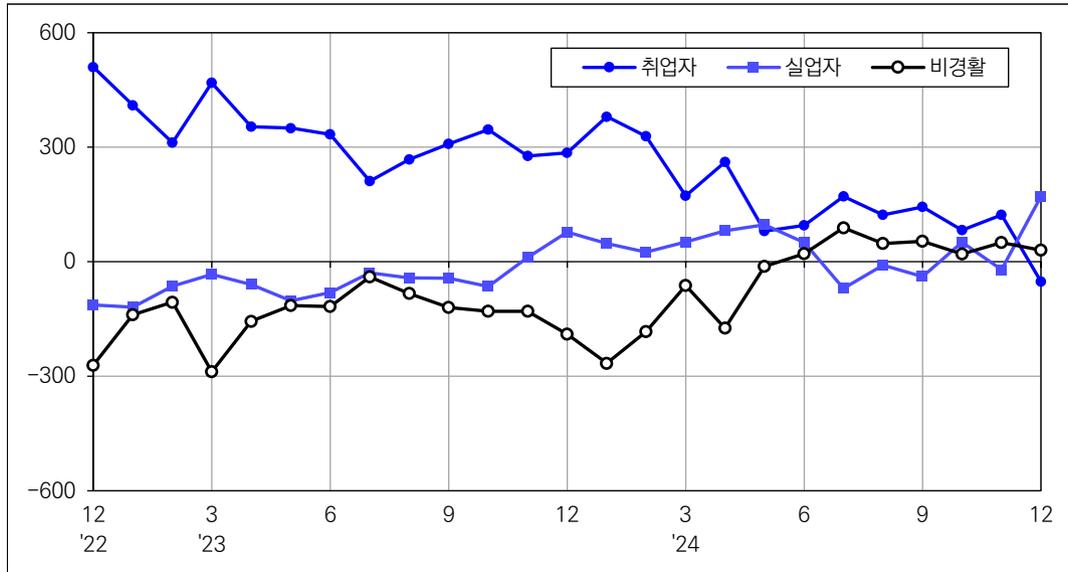
고용 동향

◆ 전년동월대비 취업자 감소 전환, 전월대비 취업자 크게 감소

- 2024년 12월 취업자 수는 전년동월대비 5만 2천 명 감소(전월대비<sup>1)</sup> 15만 6천 명 감소)함.
  - (연령별) 전년동월대비 취업자는 60세 이상에서 증가폭이 축소됨. 실업자는 40대와 50대에서 증가로 전환됐고, 60세 이상에서 증가폭이 확대됨.
  - (제조업·건설업) 전년동월대비 제조업은 감소폭을 유지했고 건설업은 감소폭이 확대됨.
  - (서비스업) 전년동월대비 전문과학기술은 증가폭이 확대됨. 반면, 운수창고업 및 교육서비스업은 증가폭이 축소됐고, 공공행정 및 보건복지는 감소 전환됨.
  - (종사상 지위별) 전년동월대비 임시직은 감소 전환됐고, 일용직은 감소폭이 확대됨.
  - (실업·비경제활동인구) 전년동월대비 실업자는 17만 1천 명 증가(전월대비 29만 4천 명 증가)했고, 비경제활동인구는 2만 9천 명 증가(전월대비 11만 4천 명 감소)함.
  - (확장실업률) 계절조정 확장실업률은 9.5%로 전월대비 0.8%p 증가함.

[그림 1] 원계열 취업자, 실업자, 비경제활동인구 증감 변화

(단위 : 천 명, 전년동월대비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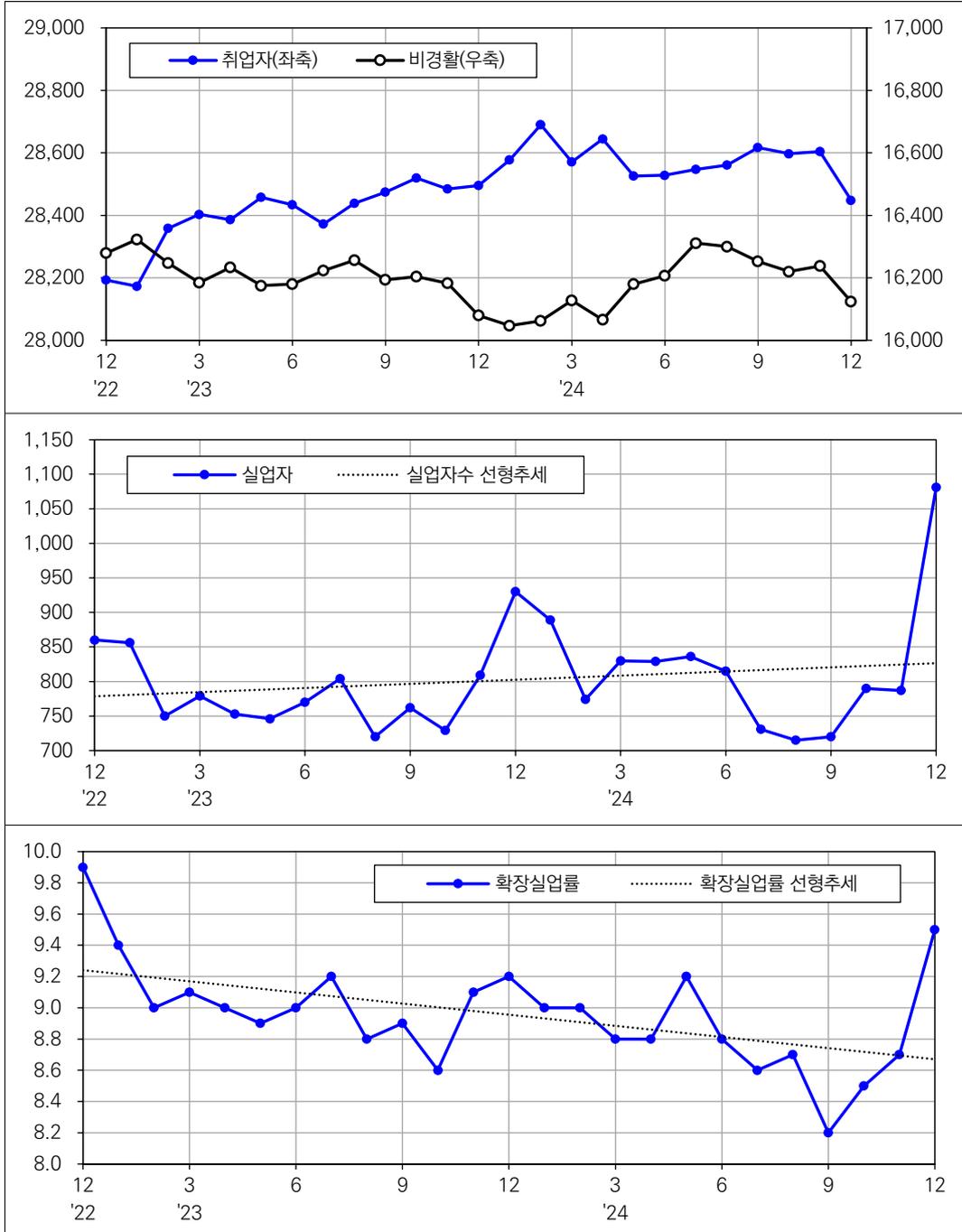


자료 : 통계청, 「경제활동인구조사」.

1) 본고에서 전월대비 수치는 통계청 계절조정계열 자료를 활용함.

[그림 2] 계절조정 취업자, 비경제활동인구(상), 실업자 수(중) 및 확장실업률(하) 변화

(단위 : 천 명)



자료 : 통계청, 「경제활동인구조사」.

- (연령별) 12월 전년동월대비 취업자는 20대에서 감소폭이 확대됐고, 60세 이상에서 증가폭이 축소됨. 실업자는 40대와 50대에서 증가로 전환됐고, 60세 이상은 증가폭이 확대됨.
  - 20대는 제조업과 정보통신업에서 감소폭이 확대됐고, 교육서비스업에서 증가폭이 축소됨.
  - 30대는 전문과학기술에서 증가폭이 확대됐고, 제조업 및 숙박음식업에서 감소폭이 확대됨. 건설업에서는 감소로 전환됨.
  - 40대는 전문과학기술에서 증가로 전환된 반면 도소매업, 사업시설관리지원 및 교육서비스업에서는 감소폭이 확대됨. 공공행정에서는 증가폭이 축소됨.
  - 50대는 제조업에서 증가폭이 확대됐고, 사업시설관리지원에서 감소폭이 축소됨. 건설업에서는 감소폭이 확대됐고, 운수창고업 및 교육서비스업에서는 증가폭이 축소됨.
  - 60세 이상은 농림어업에서 증가 전환됨. 공공행정 및 보건복지에서는 감소로 전환됨. 60세 이상 취업자 및 실업자 수 증감폭 변화는 2024년 12월 조사기간(15~21일)이 2023년 12월(10~16일)보다 늦어지면서 노인일자리사업 종료 영향이 추가적으로 포착된 것임.

〈표 1〉 연령별 취업자 동향

(단위 : 천 명, %, 전년동월대비, ( ) 안은 계절조정계열 전월대비)

	15~19세				20대				30대			
	10월	11월	12월	(전월비)	10월	11월	12월	(전월비)	10월	11월	12월	(전월비)
취업자	-7	-10	-23	(-10)	-175	-170	-194	(-26)	67	89	96	(-10)
실업자	-4	-2	-3	( 1)	11	1	5	( 16)	2	-15	-21	( -5)
비경활	-14	-11	5	( 10)	-60	-57	-40	( -1)	-35	-35	-31	( 21)
실업률	-2.4	-1.1	-1.2	( 1.1)	0.6	0.3	0.4	( 0.4)	0.0	-0.3	-0.4	( 0.0)
고용률	-0.2	-0.4	-0.9	(-0.4)	-0.6	-0.5	-1.0	(-0.3)	0.5	0.9	0.9	(-0.2)
	40대				50대				60세 이상			
	10월	11월	12월	(전월비)	10월	11월	12월	(전월비)	10월	11월	12월	(전월비)
취업자	-72	-91	-97	( 8)	12	7	4	( 32)	257	298	162	(-63)
실업자	18	-9	4	( 10)	19	-8	9	( 16)	6	11	177	(187)
비경활	-99	-52	-59	(-29)	16	36	12	(-51)	212	170	143	(-81)
실업률	0.2	-0.1	0.1	( 0.1)	0.3	-0.1	0.2	( 0.2)	0.1	0.1	2.3	( 2.6)
고용률	0.6	0.4	0.3	( 0.2)	-0.2	-0.3	-0.2	( 0.4)	0.2	0.5	-0.3	(-0.6)

자료 : 통계청, 「경제활동인구조사」.

- (산업별) 12월 전년동월대비 취업자는 건설업에서 감소폭이 확대됨. 교육서비스업에서는 증가폭이 축소됐고, 공공행정 및 보건복지에서는 감소로 전환됨. 전문과학기술에서는 증가폭이 확대됨.

- 전월대비 취업자는 농림어업 및 전문과학기술에서 증가함. 건설업, 운수창고업, 공공행정, 교육서비스 및 보건복지에서는 감소함.

○(종사상 지위별) 12월 전년동월대비 임시직은 감소 전환됐고, 일용직은 감소폭이 확대됨.

- 상용직은 건설업에서 감소폭이 확대됐고, 전문과학기술에서는 증가폭이 확대됨. 임시직은 2023년과 2024년 12월 조사기간 차이 및 노인일자리사업 종료 영향으로 공공행정 및 보건복지에서 감소 전환됨. 일용직은 건설업 및 숙박음식업에서 감소폭이 확대됨.
- 고용주는 건설업에서 증가폭이 확대됐고, 전문과학기술에서 증가로 전환됨. 자영자는 농림어업에서 감소폭이 축소됐고, 제조업 및 교육서비스업에서 증가폭이 축소됨.

〈표 2〉 산업별 취업자 수 증감

(단위 : 천 명, 전년동월대비, 전월대비)

	전년동월대비(원계열)			전월대비(계절조정계열)		
	10월	11월	12월	10월	11월	12월
농림어업	-67	-35	25	-22	21	39
광업	0	1	4	0	1	3
제조업	-33	-95	-97	3	-44	0
전기·가스·증기	-3	-3	-4	3	-4	-1
수도·원료재생	3	-7	2	-5	-5	7
건설업	-93	-96	-157	2	11	-44
도매 및 소매업	-148	-89	-96	-43	43	-9
운수 및 창고업	52	42	19	-15	-15	-32
숙박 및 음식점업	28	24	12	2	-17	3
정보통신업	68	71	52	-12	-13	2
금융 및 보험업	24	32	35	-10	3	1
부동산업	-4	4	11	8	4	3
전문·과학·기술	77	48	107	5	-6	37
사업시설관리지원	-62	-86	-58	-11	-25	-11
공공행정·사회보장	35	58	-1	0	16	-31
교육서비스업	84	106	66	32	10	-22
보건 및 사회복지	97	113	-3	28	20	-155
예술·스포츠·여가	-11	2	17	-4	12	7
협회·단체·수리·기타	23	16	0	4	-11	-9
가구 내 고용·자가소비	14	21	17	0	1	4
국제 및 외국기관	-3	-4	-5	2	-2	0

자료 : 통계청, 「경제활동인구조사」.

〈표 3〉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 수 증감

(단위 : 천 명, 전년동월대비, 전월대비)

	전년동월대비(원계열)			전월대비(계절조정계열)		
	10월	11월	12월	10월	11월	12월
상용직	91	167	187	32	86	24
임시직	105	106	-86	-40	-41	-215
일용직	-100	-103	-150	-10	-5	-40
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(고용주)	-7	-39	-4	-12	-30	24
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(자영자)	44	26	12	18	-6	-34
무급가족종사자	-49	-35	-10	-13	10	4

자료 : 통계청, 「경제활동인구조사」.

〈표 4〉 종사상 지위별, 산업별 취업자 수 증감

(단위 : 천 명, 전년동월대비)

	상용직			임시직			일용직			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			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		
	10월	11월	12월	10월	11월	12월	10월	11월	12월	10월	11월	12월	10월	11월	12월
농림어업	3	7	7	-5	2	-1	-12	-1	3	-3	2	-1	-31	-38	-8
제조업	-43	-45	-40	-5	-45	-40	-9	-23	-22	3	7	5	16	12	4
건설업	-56	-36	-77	-8	-8	-14	-35	-41	-63	7	1	12	-1	-8	-12
도소매	-55	-26	-10	6	26	20	-15	-7	-16	-30	-39	-34	-34	-32	-43
운수창고	42	32	28	12	20	8	8	6	8	-5	-10	-10	-2	-3	-13
숙박음식	28	25	28	29	35	35	-9	-23	-41	-7	-13	-4	-1	10	8
정보통신	64	73	53	-18	-6	-15	-2	-4	-1	7	2	3	14	4	9
금융보험	12	34	40	9	-4	-4	-1	1	0	-2	-2	-2	6	2	-1
부동산	-1	6	8	-18	-8	-8	-1	1	1	7	-1	1	12	11	15
전문과학기술	47	19	71	12	11	5	-2	-3	-3	-3	-2	6	24	22	27
사업관리지원	-50	-47	-38	11	-1	0	-24	-27	-20	-8	-8	-3	5	-4	2
공공행정	19	40	38	18	17	-38	-2	2	0	0	0	0	0	0	0
교육서비스	54	65	42	-7	6	1	-1	-2	-4	-1	3	4	38	34	21
보건복지	22	32	39	74	72	-34	-4	1	-6	1	2	-4	4	5	1
예술스포츠	15	8	16	-34	-24	-24	4	4	8	7	6	8	0	10	9
협회단체	-3	-3	-6	17	3	3	-3	5	3	20	13	13	-6	-4	-11
가구 내 고용	-1	-1	0	12	14	19	7	8	1	0	0	0	-4	0	-2

자료 : 통계청, 「경제활동인구조사」.

○(실업·비경황) 12월 전년동월대비 전직 1년 이내 일자리 경험이 있는 실업자는 12월 조사기간 변동과 노인일자리사업 종료 영향으로 증가폭이 크게 확대됨.

- 연령별로는 60세 이상에서 주로 증가했고, 종사산업별로는 건설업, 전문과학기술, 사업시설관리지원, 공공행정 및 보건복지에서 증가함.
- 비경제활동인구는 남성은 쉬었음에서 증가폭이 확대됐고, 통학에서 감소폭이 축소됨. 여성은 육아·가사에서 감소폭이 확대됐고, 쉬었음에서 증가폭이 축소됨.

〈표 5〉 전직 일자리 경험자의 주요 종사산업별 실업자 증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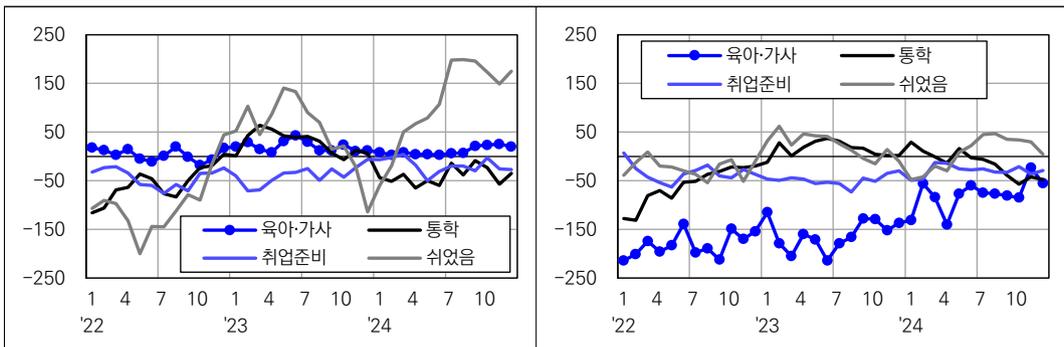
(단위 : 천 명, 전년동월대비)

	전체		15~29세		30대		40대		50대		60세 이상	
	11월	12월	11월	12월	11월	12월	11월	12월	11월	12월	11월	12월
1년 이내 일자리 경험 유	15	175	15	22	-12	-25	5	4	-4	11	11	163
농림어업	0	7	0	0	-1	0	1	0	0	1	0	7
제조업	-10	-4	-4	2	-10	-5	4	3	-2	-4	0	0
건설업	3	21	1	3	4	2	-1	-1	-2	7	2	10
도매 및 소매업	-1	1	3	7	-6	-12	0	3	-5	0	7	3
운수 및 창고업	5	-4	0	-2	2	2	-1	-4	2	-1	2	1
숙박 및 음식점업	11	6	11	8	-3	-5	-1	2	1	2	2	0
정보통신업	6	0	1	8	5	-4	-1	-3	-1	-2	3	1
금융 및 보험업	7	6	7	6	0	0	0	0	0	0	0	0
전문·과학·기술	14	14	1	0	10	10	3	1	-2	-1	2	3
사업시설관리지원	12	16	7	5	1	5	3	2	7	11	-5	-6
공공행정·사회보장	-1	27	1	1	-2	-2	-1	-1	2	2	0	28
교육서비스업	2	3	-6	-3	1	-5	3	4	2	4	2	4
보건 및 사회복지	-11	94	-5	-4	-4	-4	0	1	0	-4	-2	105
예술·스포츠·여가	-8	-3	-2	-5	-5	-4	0	-1	0	2	0	4

자료 : 통계청, 「경제활동인구조사」.

〈그림 3〉 성별(좌 : 남성, 우 : 여성) 및 사유별 비경제활동인구 증감

(단위 : 천 명, 전년동월대비)



자료 : 통계청, 「경제활동인구조사」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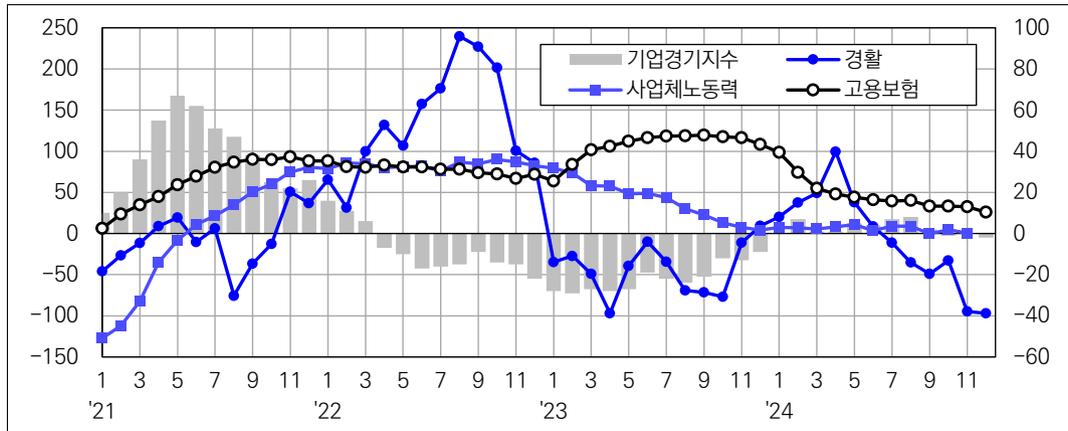
◆ 제조업 취업자 감소폭 유지, 서비스업 취업자는 증가폭 축소

○ 12월 전년동월대비 제조업 취업자는 9만 7천 명 감소하여 감소폭을 유지함. 계절조정계열 취업자는 전월과 같음.

- 전년동월대비 고용보험 피보험자 증가폭은 꾸준히 축소됨. 외국인을 제외한 내국인 제조업 피보험자 수는 감소폭을 유지함. 사업체노동력조사 종사자는 증가폭이 소폭 축소됨.
- 기업경기지수는 74로 전년동월대비 소폭 감소함.

[그림 4] 제조업 고용 증감(좌) 및 기업경기지수(우) 증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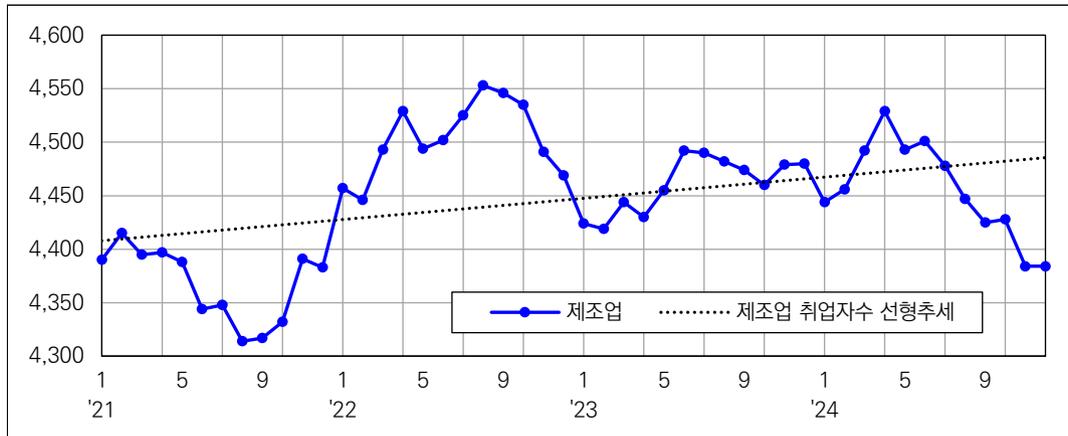
(단위 : 천 명, p, 전년동월대비)



자료 : 통계청, 「경제활동인구조사」; 고용노동부, 「사업체노동력조사」; 한국고용정보원, 「고용행정통계」; 한국은행, 「기업경기조사」.

[그림 5] 계절조정 제조업 취업자 수

(단위 : 천 명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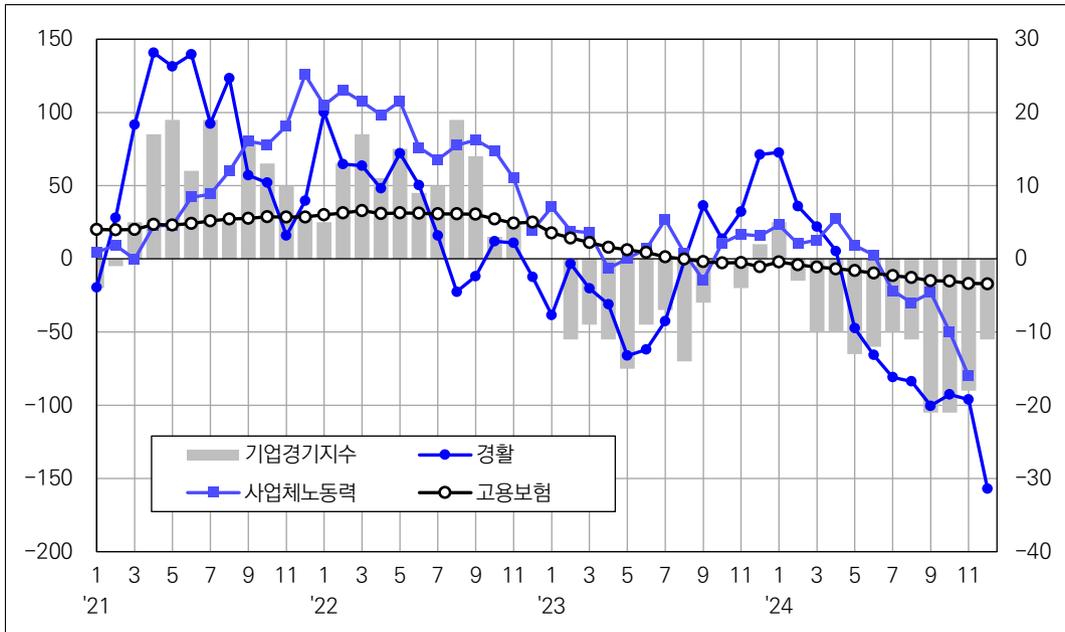


자료 : 통계청, 「경제활동인구조사」.

- 12월 건설업 취업자는 전년동월대비 15만 7천 명 감소하여 감소폭이 크게 확대됨.
  - 사업체노동력조사 종사자 수도 감소폭이 크게 확대됨. 피보험자 수는 감소폭을 유지함. 기업경기지수는 감소폭이 축소됨.

[그림 6] 건설업 고용 증감(좌) 및 기업경기지수(우) 증감

(단위 : 천 명, p, 전년동월대비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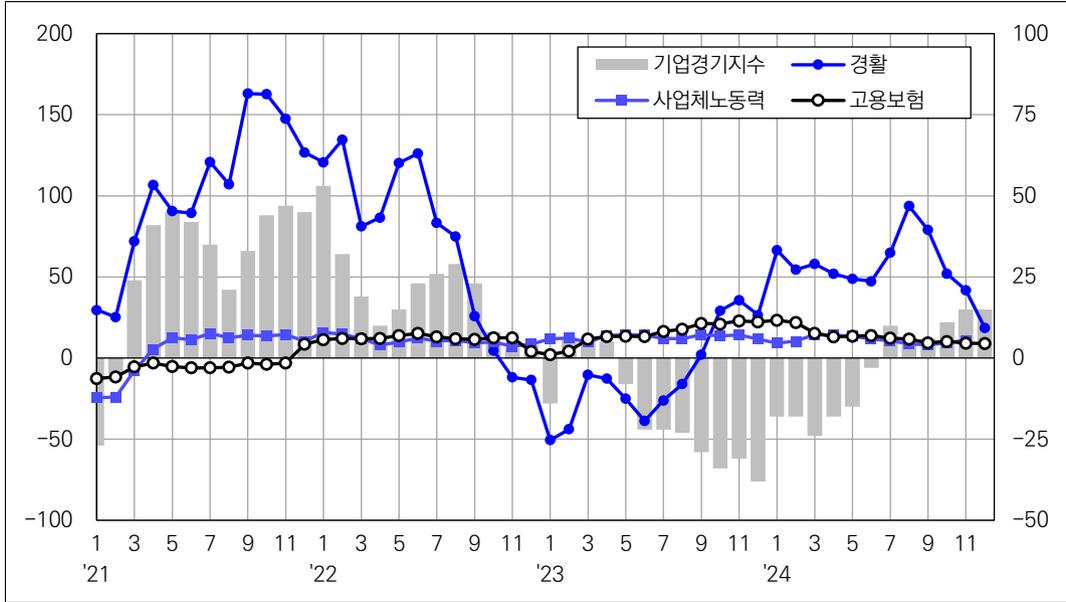


자료 : 통계청, 「경제활동인구조사」; 고용노동부, 「사업체노동력조사」; 한국고용정보원, 「고용행정통계」; 한국은행, 「기업경기조사」.

- 12월 서비스업은 전년동월대비 17만 7천 명 증가하여 증가폭이 크게 축소됨.
  - (운수창고) 전년동월대비 취업자 수 증감폭이 4개월 연속 축소됨. 그 외 지표는 증가폭을 유지함.
  - (전문과학기술) 전년동월대비 취업자 수 증가폭이 확대됨. 피보험자 수 증가폭도 확대됨. 기업경기지수는 감소 전환됨.
  - (공공행정) 노인일자리사업 종료 영향으로 전년동월대비 취업자 수가 감소 전환됨.
  - (교육서비스) 전년동월대비 취업자 수 증가폭이 축소됨. 그 외 지표는 증가폭을 유지함.
  - (보건복지) 노인일자리사업 종료 영향으로 전년동월대비 취업자 수가 감소 전환됨. 피보험자 수도 증가폭이 축소됨.

[그림 7] 운수 및 창고업 고용 증감(좌) 및 기업경기지수(우) 증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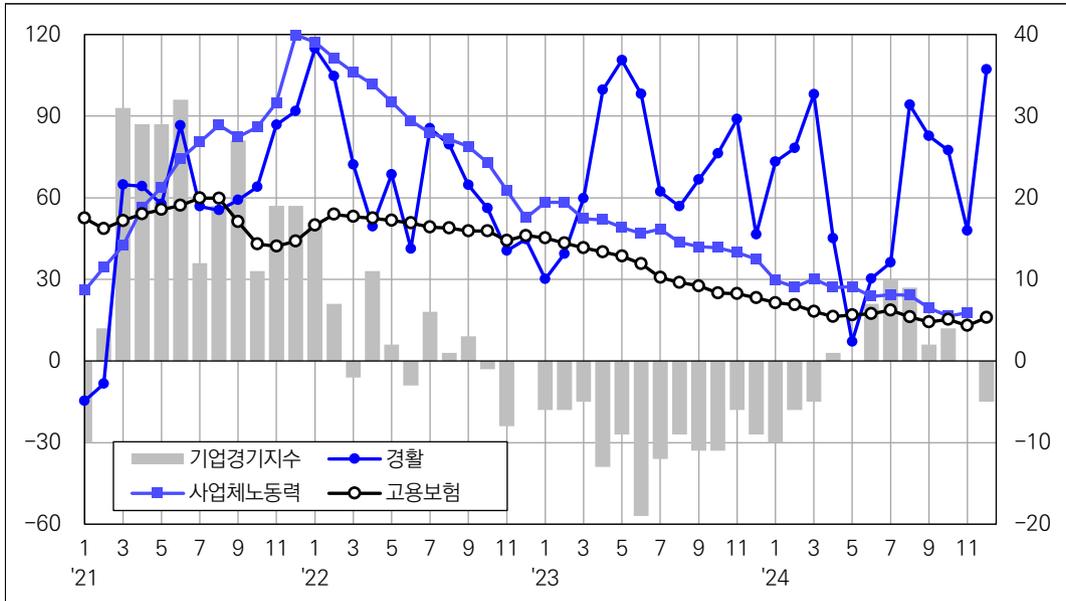
(단위 : 천 명, p, 전년동월대비)



자료 : 통계청, 「경제활동인구조사」; 고용노동부, 「사업체노동력조사」; 한국고용정보원, 「고용행정통계」; 한국은행, 「기업경기조사」.

[그림 8] 전문,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고용 증감(좌) 및 기업경기지수(우) 증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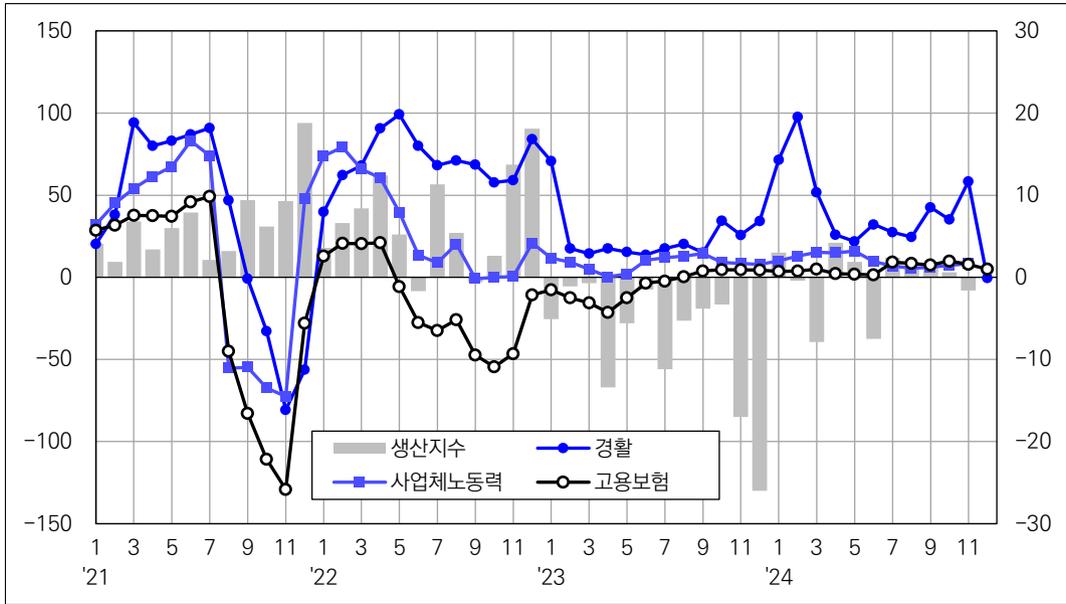
(단위 : 천 명, p, 전년동월대비)



자료 : 통계청, 「경제활동인구조사」; 고용노동부, 「사업체노동력조사」; 한국고용정보원, 「고용행정통계」; 한국은행, 「기업경기조사」.

[그림 9] 공공행정,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고용 증감(좌) 및 생산지수(우) 증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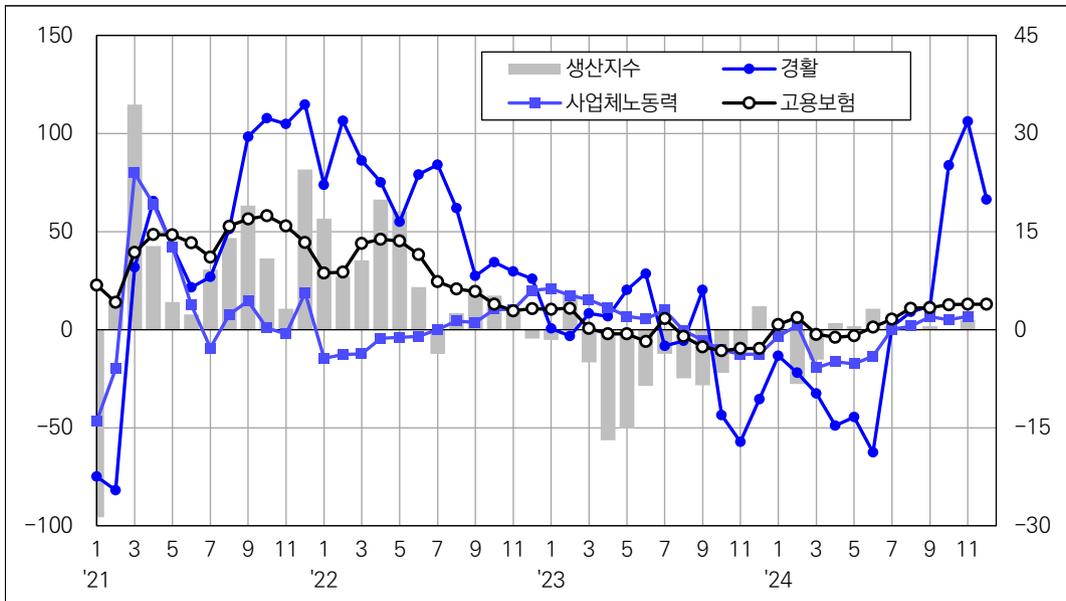
(단위 : 천 명, p, 전년동월대비)



자료 : 통계청, 「경제활동인구조사」, 「전산업생산지수」; 고용노동부, 「사업체노동력조사」; 한국고용정보원, 「고용행정통계」.

[그림 10] 교육서비스업 고용 증감(좌) 및 생산(학원)지수(우) 증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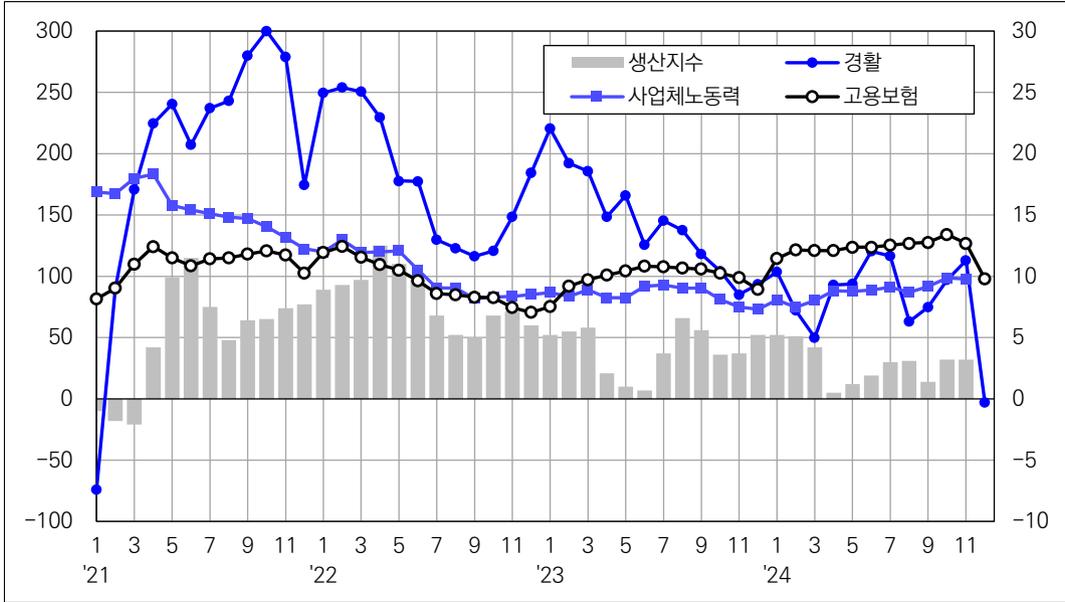
(단위 : 천 명, p, 전년동월대비)



자료 : 통계청, 「경제활동인구조사」, 「서비스업동향조사」; 고용노동부, 「사업체노동력조사」; 한국고용정보원, 「고용행정통계」.

[그림 11]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고용 증감(좌) 및 생산지수(우) 증감

(단위 : 천 명, p, 전년동월대비)



자료 : 통계청, 「경제활동인구조사」, 「서비스업동향조사」; 고용노동부, 「사업체노동력조사」; 한국고용정보원, 「고용행정통계」.

(지상훈, 동향분석실 책임연구원)

## ● 임금 및 근로시간 동향

### ◆ 2024년 10월 명목임금 전년동월대비 3.4% 증가

- 2024년 10월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은 392만 2천 원(3.4% 상승)이었음.
  - 2024년 10월 상용근로자 임금(416만 8천 원)은 전년동월대비 3.7% 증가한 반면 임시일용 근로자 임금(181만 6천 원)은 전년동월대비 2.3% 감소하였음.
  - 상용근로자의 임금증가폭 둔화는 정액급여 증가폭의 둔화(-0.6%p)와 특별급여 증가폭의 둔화(-7.3%p) 영향이 컸음.
  - 정액급여 증가폭의 둔화가 컸던 산업은 숙박 및 음식점업(-5.3%p)과 부동산업(-3.5%p)이었고, 특별급여 증가폭의 둔화가 컸던 산업은 협회 및 단체,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(-188.5%p)과 정보통신업(-170.0%p)이었음.
  - 임시일용근로자의 임금은 전년동월대비 감소하였으며, 운수 및 창고업(-14.7%), 숙박 및 음식점업(-9.3%)에서 크게 감소하였음.
  - 특히 건설업 부진 영향으로 건설업 임시일용근로자의 임금 감소폭(-13.6%p)이 컸는데 이는 상대적으로 임금수준이 높은 건설업 임시일용근로자의 비중 축소로 인한 구성효과에도 기인함.
- (1~10월 평균) 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 근로자 임금총액은 405만 5천 원으로 전년동평균대비 2.8% 증가하였음.
  - 전년동평균대비 상용근로자의 임금은 증가폭이 둔화된 반면 임시일용근로자의 임금은 증가폭이 확대되었음.
  - 상용근로자의 임금 증가폭이 둔화된 산업은 숙박 및 음식점업(-5.6%p), 협회 및 단체,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(-2.4%p), 운수 및 창고업(-2.0%p), 건설업(-1.7%p), 제조업(-1.2%p) 등이었음.
  - 임시일용근로자의 임금은 전년동평균대비 증가하였으나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(-8.3%), 운수 및 창고업(-7.0%), 숙박 및 음식점업(-5.0%) 등 일부 산업은 감소하였음.
- ※ 초과급여 : 연장(야근근로 포함) 및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으로 지급되는 급여  
 특별급여 : 상여금, 성과급, 임금인상소급분, 학자금 등 정기 또는 비정기적으로 지급되는 특별한 급여

◆ 2024년 10월 실질임금은 전년동월대비 2.1% 증가

○ (1~10월 평균) 소비자물가지수(2020=100.0)를 고려한 실질임금(0.3%)은 물가상승률의 둔화 영향으로 전년동평균대비 4개월 연속 플러스(+)를 유지하고 있음.

◆ 2024년 10월 협약임금인상률(임금총액 기준)은 4.1%

○ 임금총액 기준 전년동평균대비 0.3%p 둔화하였음. 민간부문(4.1%)은 0.3%p 둔화한 가운데 공공부문(2.2%)은 0.2%p 상승하였음.

※ 협약임금인상률 : 근로자가 100인 이상인 사업장을 대상으로 임금인상 결정 시 지급하기로 한 임금(연장·야간·휴일근로수당·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등 사후적으로 결정되는 임금은 제외)인상률임.

〈표 1〉 임금 동향(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 근로자 기준)

(단위 : 천 원, %, 2020=100.0)

	2020	2021	2022	2023	2023		2024		
					1~10월	10월	1~10월	10월	
전체 근로자 임금총액	3,527 ( 1.1)	3,689 ( 4.6)	3,869 ( 4.9)	3,966 ( 2.5)	3,944 ( 2.7)	3,792 ( 4.4)	4,055 ( 2.8)	3,922 ( 3.4)	
상용 근로자	임금총액	3,719 ( 0.4)	3,893 ( 4.7)	4,095 ( 5.2)	4,211 ( 2.8)	4,187 ( 3.1)	4,311 ( 2.9)	4,168 ( 3.7)	
	정액급여	3,077 ( 2.2)	3,181 ( 3.4)	3,319 ( 4.3)	3,444 ( 3.8)	3,426 ( 3.9)	3,435 ( 3.6)	3,540 ( 3.3)	3,539 ( 3.0)
	초과급여	200 (-0.9)	208 ( 3.7)	220 ( 5.7)	227 ( 3.3)	226 ( 3.0)	252 ( 5.6)	240 ( 6.4)	265 ( 5.3)
	특별급여	441 (-9.9)	504 (14.3)	556 (10.4)	540 (-2.9)	536 (-1.7)	331 (17.2)	531 (-0.9)	364 ( 9.9)
임시일용근로자 임금총액	1,636 ( 7.8)	1,700 ( 3.9)	1,747 ( 2.8)	1,785 ( 2.2)	1,768 ( 1.6)	1,860 ( 6.2)	1,811 ( 2.4)	1,816 (-2.3)	
소비자물가지수	100.0 ( 0.5)	102.5 ( 2.5)	107.7 ( 5.1)	111.6 ( 3.6)	111.4 ( 3.7)	113.3 ( 3.7)	114.1 ( 2.4)	114.7 ( 1.3)	
실질임금증가율	0.5	2.0	-0.2	-1.1	-1.0	0.7	0.3	2.1	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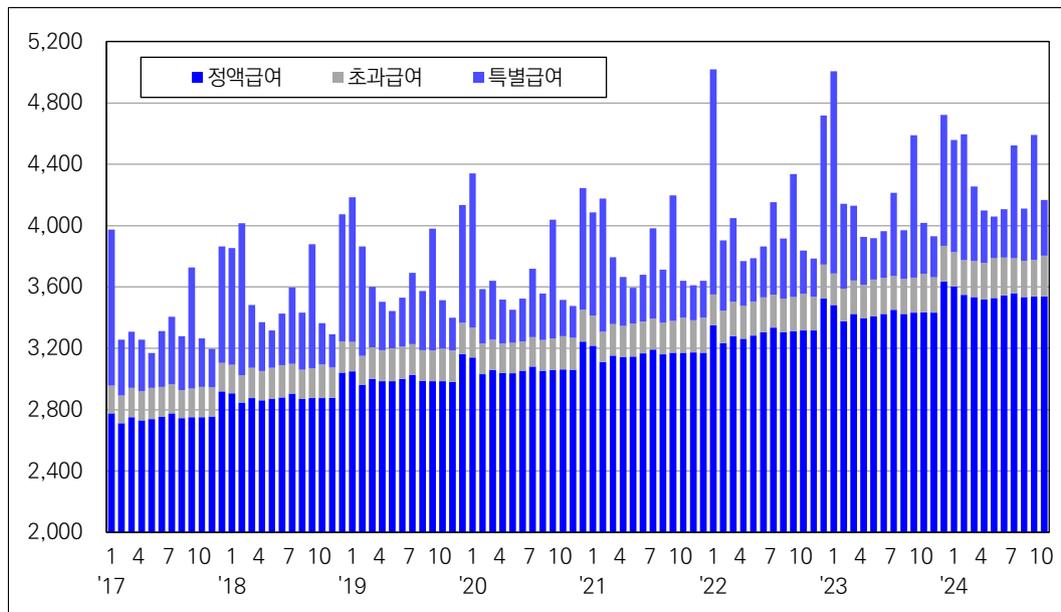
주 : 1) 임금근로자 명목임금임.

2) ( ) 안은 전년대비, 전년동평균대비, 전년동월대비 상승률임.

자료 : 고용노동부, 「사업체노동력조사」; 통계청, <https://kosis.kr/>

[그림 1] 상용근로자의 임금 구성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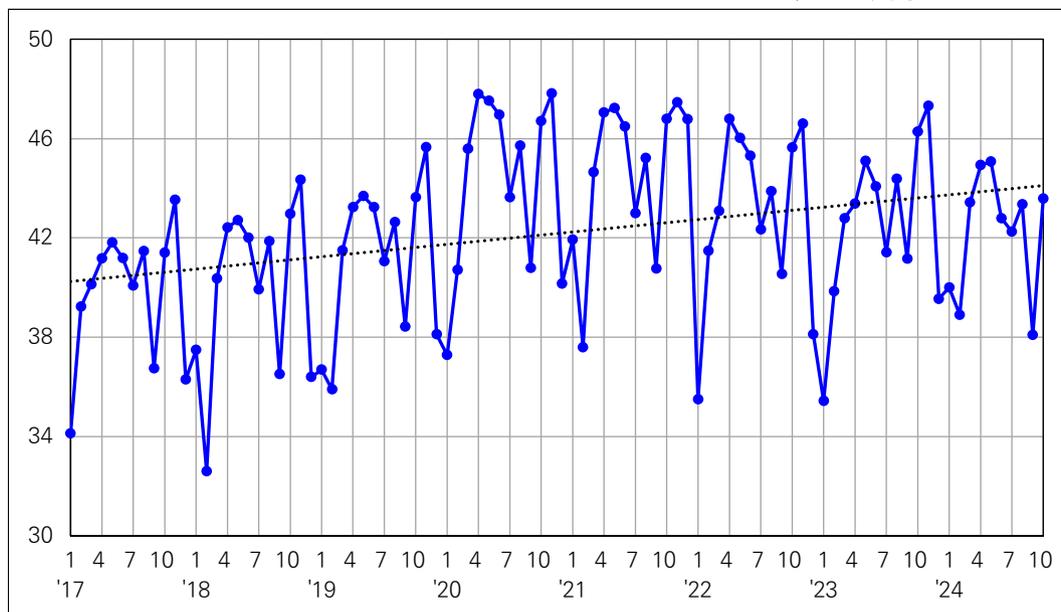
(단위 : 천 원)



자료 : 고용노동부, 「사업체노동력조사」.

[그림 2] 임시일용근로자의 상대임금 비율

(단위 : %, 상용근로자 임금=100)



자료 : 고용노동부, 「사업체노동력조사」.

◆ 2024년 10월 중소기업 · 대규모 사업체의 임금 증가폭 둔화

- 2024년 10월 중소기업(상용근로자 1~299인) 사업체와 대규모(상용근로자 300인 이상) 사업체의 임금은 전년동월대비 각각 2.7%, 5.4% 증가하였으나 증가폭은 둔화되었음.
  - (전년동월대비) 중소기업 사업체의 상용근로자 임금은 특별급여 증가폭이 크게 둔화된 영향으로 전년동월대비 3.1% 증가에 그친 반면 대규모 사업체의 상용근로자 임금은 정액급여 증가폭이 둔화된 영향으로 전년동월대비 5.5% 증가에 그쳤음.
  - 중소기업 사업체에서 특별급여가 크게 감소한 산업은 정보통신업(-43.4%), 수도, 하수 및 폐기물 처리, 원료재생업(-35.5%)이었고, 대규모 사업체에서 정액급여 증가폭 둔화가 컸던 산업은 운수 및 창고업(-7.7%p), 숙박 및 음식점업(-5.0%p), 예술,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(-4.0%p)이었음.
  - 중소기업 사업체의 임시일용근로자 임금은 전년동월대비 2.5% 감소한 반면 대규모 사업체의 임시일용근로자 임금은 전년동월과 유사한 수준이었음.
  - (1~10월 평균) 중소기업 · 대규모 사업체의 임금은 전년동평균대비 각각 3.0%, 2.1% 증가하였음.

〈표 2〉 사업체 규모별 임금 동향(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 근로자 기준)

(단위: 천 원, %)

		2022	2023	2023		2024	
				1~10월	10월	1~10월	10월
중소 규모	소 계	3,462 ( 4.4)	3,537 ( 2.2)	3,511 ( 2.3)	3,420 ( 3.5)	3,340 ( 3.0)	3,513 ( 2.7)
	상용임금총액	3,675 ( 4.7)	3,767 ( 2.5)	3,740 ( 2.7)	3,633 ( 3.7)	218 ( 3.2)	3,744 ( 3.1)
	정액급여	3,139 ( 4.2)	3,249 ( 3.5)	3,235 ( 3.6)	3,244 ( 3.2)	186 ( 3.2)	3,340 ( 3.0)
	초과급여	186 ( 5.7)	187 ( 0.8)	186 ( 0.4)	206 ( 2.4)	1,789 ( 6.2)	218 ( 5.7)
	특별급여	350 ( 8.7)	331 (-5.3)	319(-4.0)	183(14.6)	5,919 ( 1.9)	186 ( 1.8)
	임시일용임금총액	1,711 ( 2.4)	1,746 ( 2.0)	1,727 ( 1.4)	1,835 ( 6.3)	6,066 ( 2.4)	1,789(-2.5)
대규모	소 계	5,922 ( 6.1)	6,071 ( 2.5)	6,068 ( 2.7)	5,616 ( 6.4)	4,429 ( 2.1)	5,919 ( 5.4)
	상용임금총액	6,049 ( 6.4)	6,212 ( 2.7)	6,207 ( 2.9)	5,751 ( 6.7)	477 ( 2.1)	6,066 ( 5.5)
	정액급여	4,155 ( 4.6)	4,325 ( 4.1)	4,287 ( 4.1)	4,296 ( 4.1)	1,160 ( 3.8)	4,429 ( 3.1)
	초과급여	377 ( 5.5)	406 ( 7.6)	404 ( 7.1)	457(11.2)	2,229 ( 6.7)	477 ( 4.5)
	특별급여	1,516(11.8)	1,481(-2.3)	1,516(-1.6)	998(17.0)	3,617(-3.8)	1,160(16.2)
	임시일용임금총액	2,321 ( 4.8)	2,375 ( 2.3)	2,389 ( 2.7)	2,228 ( 2.8)	3,859 ( 3.0)	2,229 ( 0.0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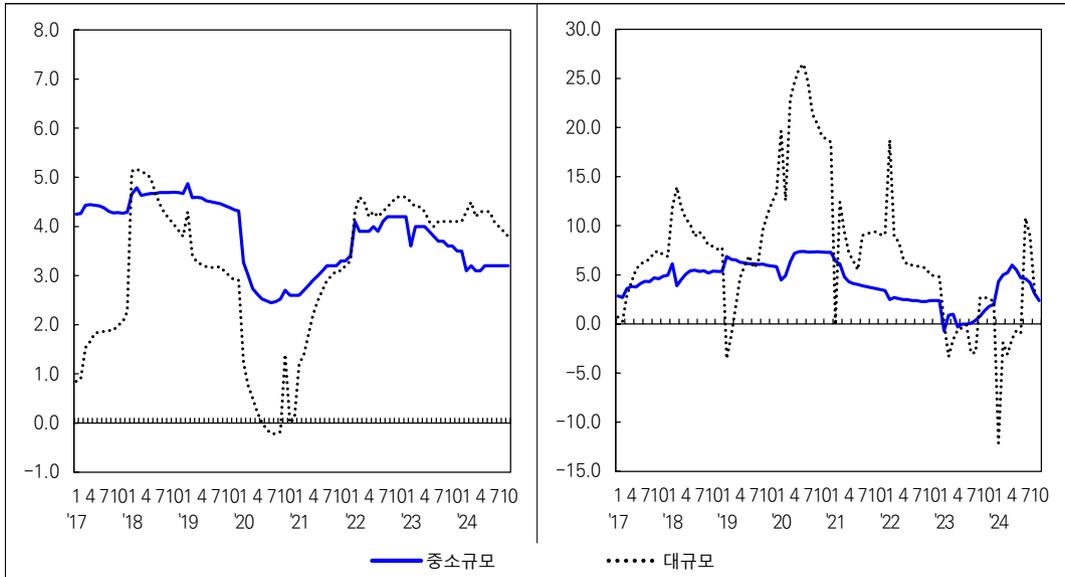
주 : 1) 임금근로자 명목임금임.

2) ( ) 안은 전년대비, 전년동평균대비, 전년동월대비 상승률임.

자료 : 고용노동부, 「사업체노동력조사」.

- 중소기업의 임금은 증가폭이 확대된 반면 대규모 사업체의 임금은 증가폭이 둔화되었음.
- 특히 중소기업의 특별급여 증가율은 2월부터 플러스(+)로 전환한 반면 대규모 사업체의 특별급여 증가율은 여전히 마이너스(-)를 기록함.

[그림 3] 사업체 규모별 상용근로자 정액급여 증가율(좌, 누계)과 임시일용근로자 임금총액 증가율(우, 누계) 추이 (단위: %)



주: 1인 기준 상용근로자의 정액급여와 임시일용근로자 임금총액의 월별 누계값 기준임.  
 자료: 고용노동부, 「사업체노동력조사」.

◆ 2024년 10월 임금증가폭이 컸던 산업은 광업(7.3%)과 제조업(6.1%)

- 2024년 10월 평균 임금증가폭(3.4%)을 상회하는 산업은 광업(7.3%), 제조업(6.1%), 협회 및 단체,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(4.7%), 사업시설관리,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(3.9%)이었음.
  - 특히 광업과 제조업의 특별급여는 전년동월대비 각각 60.7%, 25.7% 증가하였음.
  - 10월 임금총액이 가장 많은 산업은 금융 및 보험업(645만 6천 원)이었고, 임금총액이 가장 적은 산업은 숙박 및 음식점업(211만 6천 원)이었음.
  - (1~10월 평균) 모든 산업에서 전년동평균대비 임금이 증가하였음(2.8%). 특히 전기, 가스,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(5.8%), 광업(5.6%), 정보통신업(4.3%) 부문에서 임금 증가폭이 컸고, 제조업의 임금은 정액급여 증가폭의 둔화와 특별급여 감소폭의 확대 영향으로 전년동 평균대비 2.3% 증가에 그쳤음.

〈표 3〉 산업별 임금 동향(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 근로자 기준, 제10차 표준산업분류)

(단위 : 천 원, %)

	2022	2023	2023		2024	
			1~10월	10월	1~10월	10월
전 산업	3,869( 4.9)	3,966( 2.5)	3,944( 2.7)	3,792( 4.4)	4,055( 2.8)	3,922( 3.4)
광업	4,608( 4.4)	4,636( 0.6)	4,630( 1.0)	4,264( 0.4)	4,888( 5.6)	4,575( 7.3)
제조업	4,484( 5.8)	4,633( 3.3)	4,610( 3.5)	4,433( 6.3)	4,713( 2.3)	4,704( 6.1)
전기·가스·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	6,907( 2.3)	7,188( 4.1)	7,246( 6.2)	5,603( 0.3)	7,669( 5.8)	5,707( 1.9)
수도·하수·폐기물 처리 및 원료재생업	4,168( 1.8)	4,297( 3.1)	4,238( 4.2)	4,151( 5.7)	4,367( 3.0)	4,232( 2.0)
건설업	3,229( 4.0)	3,359( 4.0)	3,345( 4.0)	3,317( 4.7)	3,437( 2.7)	3,380( 1.9)
도매 및 소매업	3,773( 6.3)	3,921( 3.9)	3,894( 4.6)	3,790( 4.5)	4,018( 3.2)	3,899( 2.9)
운수 및 창고업	4,040( 6.5)	4,185( 3.6)	4,148( 5.1)	4,041( 6.0)	4,291( 3.5)	4,095( 1.3)
숙박 및 음식점업	2,004( 5.2)	2,097( 4.7)	2,090( 4.5)	2,093( 3.9)	2,137( 2.2)	2,116( 1.1)
정보통신업	4,999( 4.2)	5,120( 2.4)	5,083( 2.5)	4,938( 7.7)	5,303( 4.3)	5,008( 1.4)
금융 및 보험업	7,324( 5.2)	7,338( 0.2)	7,252( 0.1)	6,243( 3.1)	7,363( 1.5)	6,456( 3.4)
부동산업	3,086( 4.5)	3,117( 1.0)	3,114( 1.3)	3,031( 3.1)	3,165( 1.7)	3,064( 1.1)
전문·과학 및 기술서비스업	5,376( 5.3)	5,464( 1.6)	5,403( 1.7)	5,058( 2.9)	5,582( 3.3)	5,171( 2.2)
사업시설관리 및 임대서비스업	2,584( 3.7)	2,687( 4.0)	2,667( 3.9)	2,647( 4.6)	2,771( 3.9)	2,751( 3.9)
교육서비스업	3,435( 2.4)	3,508( 2.1)	3,536( 2.2)	3,256( 2.1)	3,637( 2.9)	3,345( 2.7)
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	3,122( 3.6)	3,132( 0.3)	3,125( 0.2)	3,078( 1.1)	3,209( 2.7)	3,163( 2.8)
여가 관련 서비스업	3,077( 2.8)	3,058(-0.6)	3,047(-0.1)	2,939(-0.1)	3,093( 1.5)	2,985( 1.6)
협회·단체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	2,832( 4.9)	3,009( 6.2)	3,003( 6.3)	3,107(13.4)	3,115( 3.7)	3,252( 4.7)

주 : 1) 임금근로자 명목임금임.

2) 2020년 1월부터 제10차 표준산업분류를 반영하여 산업별 임금총액을 공표함에 따라 2020년 이전 자료와의 산업별 비교에 유의해야 함.

3) ( )안은 전년대비, 전년동평균대비, 전년동월대비 상승률임.

자료 : 고용노동부, 「사업체노동력조사」.

### ◆ 2024년 10월 근로시간은 전년동월대비 5.4시간 증가(근로일수 1일 증가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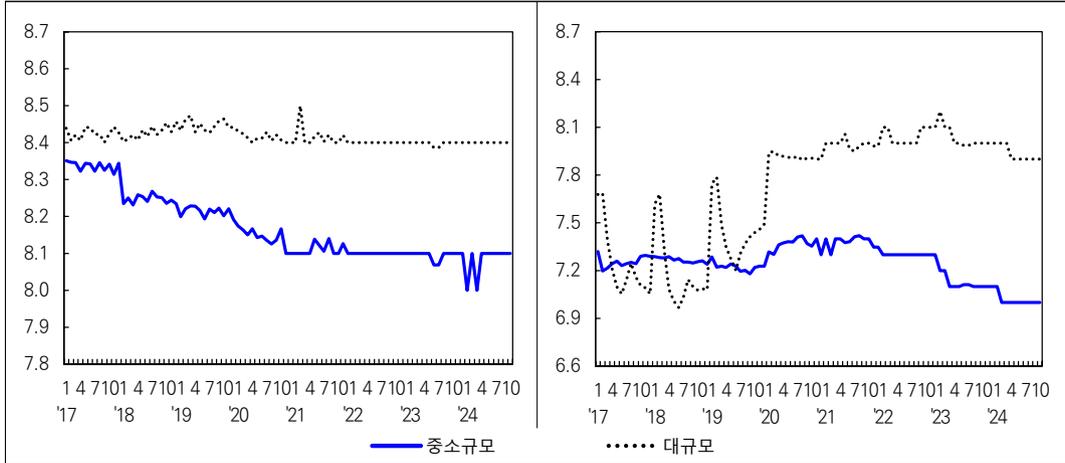
○ 2024년 10월 근로자의 월평균 근로시간은 152.3시간으로 전년동월대비 5.4시간 증가하였음.

- 상용근로자의 근로시간(160.1시간)은 전년동월대비 6.4시간 증가한 반면 임시일용근로자의 근로시간(85.6시간)은 전년동월대비 2.9시간 감소하였음.
- 상용근로자의 근로시간은 월력상 근로일수 증감에 영향을 크게 받는 편이며, 월력상 근로일수가 1일 증가한 영향이 컸음. 상용근로자의 근로시간이 크게 증가한 산업은 광업(10.5시간), 제조업(8.2시간), 정보통신업(7.3시간) 등이었음.
- 임시일용근로자의 근로시간은 전년동월대비 감소하였고, 운수 및 창고업(-9.3시간), 숙박 및 음식점업(-7.8시간), 제조업(-7.4시간) 등에서 근로시간이 크게 감소하였음.

○ 2024년 10월 중소기업의 근로시간(151.5시간)과 대규모 사업체의 근로시간(156.1시간)은 전년동월대비 각각 5.4시간, 5.6시간 증가하였음.

[그림 4] 사업체 규모별 상용근로자 일일 평균 근로시간(좌, 누계)과 임시일용근로자 일일 평균 근로시간(우, 누계) 추이

(단위 : 시간/일)



주 : 일일 평균 근로시간은 사업체 규모별 상용근로자와 임시일용근로자의 전체 근로시간을 사업체 규모별 상용근로자와 임시일용근로자의 전체 근로일수로 나눈 것임.  
 자료 : 고용노동부, 「사업체노동력조사」.

<표 4> 사업체 규모별 근로시간 동향(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 근로자 기준)

(단위 : 시간, %)

		2022	2023	2023		2024	
				1~10월	10월	1~10월	10월
중소 규모	전체 근로시간	158.3(-1.2)	155.3(-1.9)	154.7(-1.2)	146.1(-2.9)	151.5(-1.0)	151.5( 3.7)
	상용 총근로시간	165.9(-1.1)	164.0(-1.1)	163.3(-0.4)	154.1(-2.2)	160.6(-0.7)	160.6( 4.2)
	상용 소정실근로시간	158.2(-1.2)	156.7(-0.9)	156.0(-0.1)	146.1(-2.1)	152.4(-0.8)	152.4( 4.3)
	상용 초과근로시간	7.7( 0.0)	7.3(-5.2)	7.3(-5.2)	8.0(-3.6)	8.2( 1.4)	8.2( 2.5)
	임시일용 근로시간	96.4(-1.0)	88.2(-8.5)	87.9(-8.6)	86.9(-8.5)	84.1(-4.2)	84.1(-3.2)
대규모	전체 근로시간	160.4(-1.2)	160.5( 0.1)	159.9( 0.8)	150.5(-1.6)	156.1(-0.7)	156.1( 3.7)
	상용 총근로시간	161.7(-1.0)	162.1( 0.2)	161.5( 1.0)	152.0(-1.4)	157.9(-0.6)	157.9( 3.9)
	상용 소정실근로시간	150.6(-1.1)	150.9( 0.2)	150.3( 1.1)	139.3(-2.0)	145.1(-0.8)	145.1( 4.2)
	상용 초과근로시간	11.0(-0.9)	11.2( 1.8)	11.3( 1.8)	12.7( 5.0)	12.9( 1.8)	12.9( 1.6)
	임시일용 근로시간	125.0(-2.3)	117.5(-5.9)	117.1(-5.9)	112.9(-7.2)	108.6(-4.6)	108.6(-3.8)

주 : ( ) 안은 전년대비, 전년동평균대비, 전년동월대비 상승률임.  
 자료 : 고용노동부, 「사업체노동력조사」.

◆ 2024년 10월 광업과 제조업의 근로시간 증가폭 커

- 2024년 10월 전년동월대비 근로일수가 1일 증가한 영향으로 광업(7.1%), 제조업(4.7%) 부문에서 근로시간 증가폭이 컸음.
- － 근로시간이 긴 산업은 광업(170.5시간), 제조업(168.4시간), 부동산업(164.2시간) 순이었고, 근로시간이 가장 짧은 산업은 건설업(124.7시간)이었음.

〈표 5〉 산업별 근로시간 동향(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 근로자 기준, 제10차 표준산업분류)

(단위: 시간, %)

	2022	2023	2023		2024	
			1~10월	10월	1~10월	10월
전 산업	158.7(-1.2)	156.2(-1.6)	155.6(-0.8)	146.9(-2.7)	154.1(-1.0)	152.3(3.7)
광업	174.8(-2.8)	168.5(-3.6)	166.8(-3.8)	159.2(-5.5)	169.0(1.3)	170.5(7.1)
제조업	171.1(-1.4)	170.5(-0.4)	169.6(0.4)	160.9(-2.0)	168.8(-0.5)	168.4(4.7)
전기·가스·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	158.6(-1.9)	160.0(0.9)	158.3(0.9)	132.3(-10.4)	155.2(-2.0)	137.6(4.0)
수도·하수·폐기물 처리 및 원료재생업	174.4(-1.4)	170.0(-2.5)	169.2(-2.0)	163.0(-1.0)	168.6(-0.4)	168.1(3.1)
건설업	134.3(-1.2)	128.7(-4.2)	128.1(-4.0)	121.7(-5.4)	126.9(-0.9)	124.7(2.5)
도매 및 소매업	162.3(-0.9)	159.2(-1.9)	158.6(-1.2)	149.0(-3.2)	157.1(-0.9)	155.2(4.2)
운수 및 창고업	160.6(0.2)	160.6(0.0)	160.0(0.7)	153.6(-0.6)	159.0(-0.6)	157.9(2.8)
숙박 및 음식점업	146.5(-1.3)	138.8(-5.3)	138.4(-4.9)	133.0(-7.4)	136.4(-1.4)	134.4(1.1)
정보통신업	162.7(-0.9)	162.2(-0.3)	161.6(0.5)	151.2(-0.6)	161.2(-0.2)	158.4(4.8)
금융 및 보험업	159.8(-1.3)	159.3(-0.3)	159.0(0.8)	146.8(-1.2)	157.2(-1.1)	153.0(4.2)
부동산업	169.4(-1.4)	167.5(-1.1)	166.9(-0.5)	160.4(-1.4)	165.9(-0.6)	164.2(2.4)
전문·과학 및 기술서비스업	160.3(-0.8)	158.8(-0.9)	158.2(-0.1)	146.8(-2.3)	156.8(-0.9)	153.2(4.4)
사업시설관리 및 임대서비스업	159.8(-1.4)	158.2(-1.0)	157.6(-0.3)	149.5(-1.3)	156.9(-0.4)	155.1(3.7)
교육서비스업	136.1(-0.8)	135.9(-0.1)	135.3(0.7)	126.9(-0.8)	133.4(-1.4)	131.7(3.8)
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	155.3(-1.9)	150.7(-3.0)	150.1(-2.3)	141.7(-3.5)	147.5(-1.7)	145.7(2.8)
여가 관련 서비스업	150.8(-1.2)	148.2(-1.7)	148.1(-1.0)	140.1(-2.9)	145.3(-1.9)	143.9(2.7)
협회·단체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	160.3(-1.3)	160.3(0.0)	159.7(0.8)	151.1(-1.0)	158.5(-0.8)	156.8(3.8)

주: 1) 임금근로자 근로시간임.

2) 2020년 1월부터 제10차 표준산업분류를 반영하여 산업별 근로시간을 공표함에 따라 2020년 이전 자료와의 산업별 비교에 유의해야 함.

3) ( ) 안은 전년대비, 전년동평균대비, 전년동월대비 상승률임.

자료: 고용노동부, 「사업체노동력조사」.

(김복순, 동향분석실 전문위원)

● 노사관계 및 노동정책 동향

◆ 노동쟁의 조정사건과 조정성립률

- 2024년 12월 중앙노동위원회에 접수된 노동쟁의 관련 조정사건 건수는 19건
  - － 12월 노동쟁의 조정사건 접수 건수는 전년 동월 건수(14건)보다 5건 많은 수치임.
- 2024년 12월 조정성립률 50.0%
  - － 12월 조정성립률은 전년 동월 성립률 53.8%보다 3.8%p 낮은 수치임.

〈표 1〉 2023년, 2024년 12월 조정사건 접수 및 처리 내역별 현황

	접수 건수	처리 건수	조정성립			조정불성립			행정 지도	취하 철회	진행 중	조정 성립률
			소계 A	조정안 수락	합의 취하	소계 B	조정안 거부	조정 중지				
2024. 12.	19	18	9	5	4	9	2	7	0	0	8	50.0
2023. 12.	14	15	7	5	2	6	1	5	1	1	8	53.8

자료 : 중앙노동위원회, 「사건통계」.

◆ 중재사건

- 2024년 12월 중앙노동위원회에 접수된 노동쟁의 관련 중재사건 건수는 6건
  - － 12월 중재사건 접수 건수는 전년 동월 건수(15건)보다 9건 많은 수치임.
  - － 진행 중인 사건을 제외하고 중재재정, 행정지도, 취하철회 건수는 6건임.

〈표 2〉 2023년, 2024년 12월 중재사건 접수 및 처리 내역별 현황

	접수 건수	처리 건수				진행 중
		소계	중재재정	행정지도	취하철회	
2024. 12.	6	6	6	0	0	1
2023. 12.	15	15	11	1	3	0

자료 : 중앙노동위원회, 「사건통계」.

◆ 심판사건

- 2024년 12월 중앙노동위원회에 접수된 심판사건 건수는 257건
  - 12월 심판사건 접수 건수는 전년 동월(195건)보다 62건 많은 수치임.
  - 진행 중인 사건을 제외하고 전부 및 일부 인정 비율이 18.5%(40건), 기각·각하·취하·화해 비율이 81.5%(176건)를 차지함.

〈표 3〉 2023년, 2024년 12월 심판사건 접수 및 처리 내역별 현황

	접수 건수	처리 내역							진행 중
		계	전부 인정	일부 인정	기각	각하	취하	화해	
2024. 12.	257	216	31	9	125	7	28	16	710
2023. 12.	195	176	46	3	89	3	21	14	558

자료 : 중앙노동위원회, 「사건통계」.

◆ 복수노조사건

- 2024년 12월 중앙노동위원회에 접수된 복수노조사건<sup>1)</sup> 건수는 3건
  - 12월 복수노조사건 접수 건수는 전년 동월(4건)보다 1건 적은 수치임.
  - 전부 및 일부 인정 비율이 50.0%(1건), 기각·각하·취하·화해 비율이 50.0%(1건)를 차지함.

〈표 4〉 2023년, 2024년 12월 복수노조사건 접수 및 처리 내역별 현황

	접수 건수	처리 내역							진행 중
		계	전부 인정	일부 인정	기각	각하	취하	화해	
2024. 12.	3	2	1	0	1	0	0	0	1
2023. 12.	4	3	0	0	3	0	0	0	1

자료 : 중앙노동위원회, 「사건통계」.

1) 복수노조사건은 교섭요구, 교섭대표, 교섭단위, 공정대표 사건 등 복수노조제도와 관련된 사건 일체를 말함.

◆ 주 52시간 노동상한제 위반 계도기간 종료

- 2024년 12월 26일 고용노동부는 30인 미만 사업장의 주 52시간 노동상한제 위반 계도기간을 12월 31일부로 종료한다고 발표하였음.
- 2018년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라 2021년 7월 1일부터 30인 미만 사업장에 주 52시간 노동상한제가 시행됐지만, 2022년 말까지는 노사 합의를 전제로 8시간까지 추가연장근로를 할 수 있게 했음.
- 고용노동부는 2022년 말 영세사업장의 준비 부족 등을 이유로 '계도기간'을 운영하기로 했음.
- 고용노동부는 2023년 말에도 이 계도기간을 연장해 총 2년 동안 계도기간이 운영됐음.
- 고용노동부는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계도기간을 2024년 말로 종료한다면서도, 2025년 6월까지 기업 사정을 고려해 필요한 경우 추가로 3개월의 시정 기회를 주 최대 6개월의 시정기간을 운영하기로 했음.

◆ 경사노위 '인공지능과 노동연구회' 출범

- 2025년 1월 8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'인공지능과 노동연구회' 발족식 겸 첫 전체회의가 열렸음.
- 연구회는 경사노위 지속가능한 일자리와 미래세대를 위한 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한 결과로, AI 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인해 변화하는 노동시장과 노동환경을 분석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설치됐음.
- 장지연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김덕호 경사노위 상임위원이 연구회 공동좌장을 맡았음.
- 노동계와 경영계가 각 2명, 고용노동부·산업통상자원부 각 1명, 전문가위원 9명 등 총 17명으로 구성됐음.
- 연구회는 △인공지능 기술도입과 고용에 미치는 영향 △인공지능 활용과 일하는 방식의 변화 △일자리 창출 및 근로자 보호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△AI기술 교육 및 훈련 등 인재 양성 방안 등 4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할 예정임.

### ◆ 홈플러스 10년간 6천 명 감축

- 2025년 1월 9일 노동조합에 따르면, 홈플러스 3사(홈플러스·홈플러스 스토어즈·홈플러스 홀딩스)의 직접고용 인력은 2015년 2만 5,359명에서 1만 9,280명으로 감소했음.
- 홈플러스 측은 임직원 수가 2015년 대비 감소한 건 사실이라면서도 2015년 MBK 인수 이후 인위적 구조조정은 단 한 차례도 없었다고 하였음.
- 노조는 희망퇴직이 사실상 강제적 구조조정이었고, 홈플러스가 강제 전보 등 강압적 분위기를 조성해 희망퇴직을 유도하고 있다고 하였음.
- 노조 측은 사모펀드의 무분별한 M&A로 홈플러스는 물론 국가 경제까지 위협한 상황이라고 하였음.
- 회사가 강제 전보, 협력업체 인력 감축, 노동강도 증가 문제까지 겹치면서 MBK의 인력 감축 방식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며, 노동환경 개선과 고용안정 보장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하였음.

### ◆ 물류센터 야간 노동자 10명 중 7명 “건강에 악영향”

- 2025년 1월 9일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·공공운수노조가 낸 「물류센터 야간고정 노동자들의 작업환경 및 건강수준」 보고서를 보면 물류센터 야간전담 노동자 10명 중 4명(41.11%)은 동일한 업무로 주간노동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도 전환할 생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음.
- 조사결과 이들의 노동시간은 하루 평균 9.36시간이었고, 식사시간은 51.86분, 휴식시간은 54.96분으로 나타났음.
- 지난 1년간 월평균 근무일수는 20.45일이었고, 월평균 야간근무일수는 19.37일이었음.
- 야간전담업무를 하는 이유로는 ‘동일 노동시간 대비 임금이 높아서’라고 답한 경우가 66.3%로 가장 많았음.
- ‘낮시간 생활이 용이해서’(26.3%), ‘투잡을 수행하기 좋아서’(20.37%)가 뒤를 이었음.
- 실제로 10명 중 3명 정도가 ‘투잡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음.
- 응답자의 27%는 물류센터 업무 외에 다른 일을 하고 있다고 답했고, 다른 업무의 노동시간은 주 평균 12.95시간이었음.
- 응답자 10명 중 7명(69.25%)이 야간노동이 본인의 건강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음.
- 노동자들이 체감하는 노동강도도 ‘달리면서 일하는 수준’으로 높게 나타났음.
- 주관적인 노동강도 혹은 신체적 힘들 정도를 6~20점 사이 숫자로 표시하도록 했을 때 평

- 균 14.33점이었음. 13~14점은 '빨리 걷는 수준의 힘듦'이고, 15~16점은 '100미터 달리기 수준의 힘듦'을 의미함.
- 주관적 인식뿐만 아니라 실제로 업무상 사고 또는 질병에 시달리는 노동자들이 적지 않았음.
  - 지난 1년간 업무상 사고를 경험한 응답자는 41.85%였음. 10회 이상 사고를 경험했다는 응답자도 5.16%였음.
  - 주된 사고 원인은 차량 부딪힘, 중량물 취급, 넘어짐(미끄러짐 · 이륜차 주행 등)이었음.
  - 산재를 신청했다는 응답자는 10명 중 1명(11.85%) 정도에 불과했음.
  - 산재를 신청하지 않은 이유는 '증상이 미약해서'가 68.16%로 가장 많았지만, '해고 · 임금 등 불이익 우려'도 17.94%나 됐음.
  - 야간노동을 시작하고 나서 수면장애나 우울감이 심해진 경우도 많았음.
  - 응답자의 34.07%는 '매일 또는 한 주에 여러 번 잠들기가 어렵다'라고 답했고, 37.03%가 '매일 또는 한 주에 여러 번 자는 동안 반복적으로 깬다'라고 답했음.
  - 응답자 10명 중 1명(9.63%)이 우울증이 의심되는 상황으로 파악됐음.
  - '최근 1년간 진지하게 자살을 생각한 적이 있는지'에 대해 6.3%가 '있다'라고 답했음.
  - 고혈압(12.96%)이나 심장질환(5.56%)을 야간업무 이후 앓게 됐다는 응답자도 있었음.
  - 보고서에는 지난해 10월 16일~11월 10일 쿠팡 · 다이소 · 우체국물류 등 물류센터 야간전담 노동자 27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가 담겼음.

#### ◆ 유해 노동환경, 고령층이 심해

- 2024년 12월 24일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의 「고령 취업자의 근로 환경과 과제」에서 한국의 65세 이상 고령층의 노동시장 참여율은 평균 35.3%(남성 44.9% · 여성 28.0%)로 일본(25.5%), 미국(19.4%), 유럽연합(EU · 5.9%)보다 높았음.
- 업종별로는 농림어업 종사자 비중(18.8%)이 가장 높았고 이어 보건 · 사회복지(13.3%), 제조업(9.3%), 시설관리 · 사업지원(9.1%) 순이었음. 고령 노동자 다수는 돌봄서비스업과 청소 · 경비 등 시설관리 업종에 취업했음.
- 60세 이상 고령 취업자의 근무환경은 물리적 유해위험 요인에 더 장시간 노출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음.
- 세부적으로 60세 이상 취업자의 높은 온도 노출 정도는 0.19%로 60세 미만(0.10%)보다 높았음.
- 낮은 온도와 연기 · 가루 · 먼지 흡입 노출도 60세 미만에 비해 길었음. 유해위험 노출 정도

- 는 '전혀 노출 안 됨 0~하루 종일 노출 1'로 환산한 수치임.
- 인간공학적 유해위험 노출도 60대 이상이 높았음. 고령 취업자의 계속 서 있기 노출 정도는 0.56%였는데, 60세 미만은 0.45%에 그쳤음.
  - 피로 및 통증 자세, 무거운 물건 이동, 반복적인 손·팔 동작 등의 유해요인 노출 정도 역시 60세 미만보다 컸음.
  - 개인적인 건강 문제에 대한 경험 비율도 60세 이상 고령 취업자들이 비고령 취업자들보다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났음. 특히 요통·근육통과 전신피로는 60세 이상 취업자들이 월등하게 높았음.

#### ◆ 산재노동자 자녀양육비 최대 '1천만 원'

- 2025년 1월 5일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노동자를 대상으로 하는 생활안정자금 용자사업에 자녀양육비를 추가해 이달부터 지원한다고 밝혔음.
- 기존 생활안정자금 용자 대상 중 13세 미만 자녀를 둔 산재노동자는 자녀 1명당 500만 원, 1세대당 최대 1천만 원까지 연 1.25% 저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음.
- 지원 대상은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(월 502만 5,353원) 이하의 산재노동자 중 △산재장해 1~9급 △유족급여 또는 상병보상연금 수급자 △이황화탄소(CS2) 중독으로 5년 이상 요양 중인 사람 등임.
- 공단은 의료비·혼례비·장례비·차량구입비·주택이전비·취업안정자금 등 생계형 자금을 연간 150억 원 규모로 지원해 왔음.
- 차량구입비와 주택이전비 한도는 1,500만 원, 나머지는 1천만 원임. 용자 한도 범위 내에서 종류별 중복 신청이 가능함.

#### ◆ 산재보험 선보장제, 노동자·전문가 10명 중 7명 이상 찬성

- 2025년 1월 7일 한국노총은 노동자와 산재보험 전문가, 이해관계자 등 42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「산재보험 선보장 제도 도입 필요성 실태조사」 결과를 발표했다.
- 응답자의 51.4%가 업무상 질병 산재 처리 지연 문제를 인지하고 있다고 응답했음.
- 특히 산재보험 종사자(89.8%), 변호사·노무사(88.3%), 의사(75.8%) 등 전문가 집단의 문제 인식이 높았음.
- 2023년 업무상 질병 산재 처리기간은 평균 214.5일이었음.
- 응답자의 73.6%가 산재보험 선보장 제도 도입 필요성에 공감하였음.
- 선보장 제도 도입이 시급한 질병으로는 근골격계 질병 47.0%, 뇌심혈관계 질병 22.7%, 직

- 업성 압 15.9%로 나타났음.
- 61.5%는 모든 업무상 재해에 선보장을 적용해야 한다고 응답하였음.
  - 40.2%는 산재 신청과 동시에 선보장해야 한다고 답변하였음.
  - 선보장으로 지급하는 급여는 74.1%가 '요양급여와 휴양급여가 함께 지급돼야 한다'라고 답했음.
  - 산재보험 선보장 후 산재가 최종 불승인됐을 때 보험급여를 환수하는 방안으로는 '부분 면책모델'이 38.6%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사후정산모델(31.3%), 완전면책모델(30.1%) 순이었음.
  - 현행 산재보험 제도에서 가장 개선이 시급한 제도로는 '근골격계질병 추정의 원칙'이 31.3%로 가장 많이 꼽혔고, 이어서 업무관련성 특별진찰(25.2%), 업무상 질병 역학조사(16.6%) 순이었음.

(조규준, 동향분석실 책임연구원)